

광주 살아? 이 앱 들어봤어?

모든의 쿠폰, 잇삼

광남일보

쾌적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DK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음력 4월 15일)

조간 제7839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포용디자인·AI 연계... ‘디자인 중심 도시’ 본궤도



광남초대석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장

“디자인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얼굴인 동시에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실현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체질을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의 구조를 혁신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에 감동을 더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 경영 실현, 광주시와 지역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발전 전략 추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를 광주 디자인 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포용디자인 확산, 문화자산의 글로벌 진출 등 광주의 미래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원장을 만나 구체적인 청사진을 들어봤다.

‘글로벌 디자인융합’ 목표...고유 문화자산 경쟁력 강화
산업·도시·시민 삶 변화 이끌 ‘광주형 혁신 모델’ 윤곽
지역 공예품 해외서 두각...亞 캐릭터랜드 조성 등 순항

-취임 후 6개월이 지났다. 그간의 소회는.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올해를 광주 디자인 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글로벌 디자인융합 선도 도시 광주’라는 목표 비전과 ‘2025 산업디자인 진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요지는 ‘디자인으로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뚜렷한 비전과 실현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지역산업의 혁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디자인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디자인 중심 도시’ 조성의 주요 내용은.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중심’의 광주 건설을 위한 실현 전략으로 5대 경영방침을 설정, 올해부터 세부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도시와 산업에 생명을 불어넣는 포용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이제 더 이상 제품의 외형을 아름답게 하거나 편리함을 향상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모든 산업과 도시환경, 행정, 복지, 경영 등 인간 삶의 전반에서 깊이 작동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계층의 다양성과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용이 가능한 포용디자인의 개념과 가치가 등장했다.

이 ‘포용디자인과 AI활용’을 산업혁신의 전략적 가치로 도입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한 디자인 기획과 R&D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두 번째 경영방침은 단일 산업이 아닌 전주기적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디자인 융합 플랫폼 육성이다. 디자인 테크놀로지, 서비스디자인, 콘텐츠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전략적으로 키우고, 이를 통해 광주를 ‘디자인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갖춘 디자인을 통해 광주 고유의 문화자산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 번째다. 국제 디자인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광주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광주 디자인’이 세계 시장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자인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생태계 조성이 지역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진단하고, 인재 육성과 전문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계, 지역 디자인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소통 중심의 개방형 경영 실현’인데, 디자인은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있는 것이다. ‘시민과 산업계,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을 중요한 정책적 기조로 삼는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개방형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투명한 운영과 성과기반의 책임경영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

-‘광주형 디자인’은 정확히 무엇인가.

△‘광주형 디자인 혁신 모델’은 ‘포용디자인’을 핵심 기조로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두 트랙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포용디자인’은 비교적 근래에 정립된 디자인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약자와 무장예를 추구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포함해 배려와 공평, 안전을 가치로 모든 사람에게 이용이 가능한 디자인을 목표로 한다.

21세기 들어 디자인의 영역은 전통적인 산업디자인 영역을 넘어 인간의 정신과 감정을 케어하는 분야까지 확대되고 특히, 디지털과 AI를 활용한 디자인의 진화는 현대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급속도로 빨리 그리고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디자인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전략을 ‘포용디자인’이라는 핵심 기조 하에 수립하고,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분야를 양축으로 두 트랙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산업디자인 분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강화함에 있어 ‘포용디자인’의 가치와 융합 신기술 디자인을 전폭적으로 도입하고 지원, 디자인을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포용디자인’의 가치와 필요성은 더욱 높게 요구된다. ‘안전’과 ‘배려’ ‘공평’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이 “광주 디자인 혁신의 원년인 올해 포용디자인 확산, 문화자산의 글로벌 진출 등 광주의 미래 설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가능하는 척도가 되며, 도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 생활 밀착형 공공디자인을 확대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변화를 이끌어 내고 디자인 체감도와 중요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지역 공예산업이 해외 박람회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지역 공예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최대 인테리어 박람회인 ‘파리 메종&오브제(Maison & Objet Paris)’에 지역 공방들이 2년 연속 참가하며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성사 및 현지 반응을 이끌어내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의 공예예술을 단순한 예술영역을 넘어 디자인과 산업이 결합된 광주만의 특화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1년 ‘빛고을공예창작촌’ 개관을 시작으로 2012년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 개최, 2015년 ‘광주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16년 광주 우수공예 브랜드 ‘오핸즈(Oh! Hands)’ 지정제 운영 등을 통해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을 다졌다. 이에 발맞춰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역 공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획 및 창작 기반 확충’, ‘제작 및 생산역량 강화’, ‘유통 및 소비채널 다양화’라는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사업을 운영해 왔다.

올해도 지역 우수공방이 현지에 부스를 구성해 CRAFT관에 참가 예정이며, 광주디자인진흥원은 현지 부스 임차료, 목공 부스 조성, 통역 및 운송, 왕복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등 참가 업체들이 실질적인 해외시장 진출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간 박람회 참가 성과를 바탕으로 공예상품 수출 확대,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역공방의 자생기반 강화에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공예와 디자인의 융합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과 디자인 간 연계성을 강조했는데.

△광주시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자인 산업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광주를 ‘AI 디자인 혁신도시’로 선언했다.

생성형 AI 기술은 텍스트 기반 프롬프트만으로 고품질의 제품 디자인, 시각 자료, 콘텐츠를 자동 생성해 낼으로써 디자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물론, 생산성 향상, 창의성 증대,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디자인 산업에 혁신을 불어오고 있는 신기술이다.

그러나 디자인이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것만으로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전문문화나 예술, 창의적 사고가 융합된 ‘감성적 디자인’이 생성될 때 AI 디자인은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고 완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주시는 광주가 예술과 기술이 융합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 AI 기술 기반 디자인 산업을 선도할 ‘AI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에 나섰다. ‘AI 디자인 혁신도시’로 브랜드를 구축하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같은 국제 행사에 AI 디자인 축을 신설, 글로벌 디자인 리더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생성형 AI를 디자인 기업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기업의 기술 이해도 제고와 AI 수용체계 구축이 뒷받침 돼야 한다. 사내 교육 및 실무 중심의 워크숍, 데이터 보안 및 관리 체계 구축, AI 전문가와 디자이너 간 협업 체계 마련 등이며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AI 기술의 도입과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결국 AI 디자인 기술의 도입과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역 내 스타트업, 연구기관, 디자인 기업, 대학 등을 연결하는 집적 허브를 구축해 AI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및 산업 간 융합 혁신을 선도할 계획을 세우고 중앙부처와 광주시의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사업에 기대감이 높다. 어느 단계까지 왔고, 향후 기대과제는.

광주형 캐릭터디자인 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이 될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아시아 캐릭터랜드’는 광주디자인진흥원 부지에 지상 1~2층 연면적 5850㎡ 규모로 총 30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공동 주관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시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캐릭터 쇼룸, 카페 및 캐릭터샵, 테스트베드, 창작 공작소 등이 조성된다.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행정적 승인 절차까지 마무리, 올해는 시설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 및 콘텐츠 개발이 진행되고 2026년 착공, 2027년 완공이라는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캐릭터랜드’는 아시아 및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 산업 육성을 목표로 실증과 체험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민 체험, 콘텐츠 제작, 창업 연계가 가능한 융합형 문화공간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으며, 향후 광주가 아시아 캐릭터디자인 산업의 중심이자 아시아 캐릭터 IP 플랫폼으로도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시아 캐릭터랜드는 산업과 문화, 관광이 융합된 대표적인 디자인 프로젝트다. 광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해 나가겠다.

송대경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디자인진흥원 ESG 혁신리더 출범식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공예문화사업육성사업 통합사업설명회